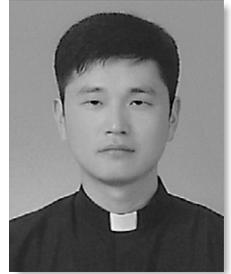


주일의말씀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묵상”



이병훈 세례자 요한 신부
대구SOS어린이마을 원장

“인간적인 것 가운데 나와 무관한 것은 없다”는 문구를 가장 좋아하던 칼 마르크스는 <헤겔 법철학 비판 서문>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종교적 고난은 현실적 고난의 표현인 동시에 현실적 고난에 대한 항의다. 종교는 억압받는 피조물들의 한숨이며, 심장 없는 세상의 심장이며, 영혼 없는 상황의 영혼이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당시 유일한 진통제)이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종교를 대신하여 ‘인간들의 피의 투쟁’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교라는 것은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 그냥 그렇게 살아라’ 하면서 자기의 배만 불리고 있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그냥 그렇게 살아라’ 하면서 자기의 쾌락만 즐기고 있다. 그러니 여전히 종교는 인민의 아편일 뿐이다.”

저와 여러분은 ‘공산주의자’(共産主義者)나 ‘민주주의자’(民主主義者)가 아닙니다. ‘주의자(主義者)’이기 이전에 ‘주의자(主의子)’입니다. ‘주의자(主의子)’들은 고통받는 이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십자가 앞에 꿇어 주께 물었네.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들, 총부리 앞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 가는 이들을 왜 당신은 보고만 있나고, 눈물을 흘리며 주께 물었네. 세상엔 죄인들과 닫힌 감옥이 있어 야만 하고, 인간은 고통 속에서 번민해야 하느냐고...” 그런데 답은 이렇게 얻습니다. “조용한 침묵

속에서 주님 말씀하셨지. ‘사랑, 사랑, 사랑, 오직 서로 사랑하라’고.” 그리고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난 영원히 기도하리라. 세계 평화 위해, 난 사랑하리라. 내 모든 것 바쳐.” 위의 질문과 답, 결심은 <울지마톤즈>의 주인공 **故 이태석 요한 신부**님께서 중학생 때 만든 <묵상>이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인간의 고통에 대해 하느님은 “사랑하라”는 답밖에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도 참된 신앙인은 고통 받는 인간들에게 “그러니 그냥 그렇게 살면 나중에 보상 받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느님 앞에서 “그러니 말씀하신대로 그들에게 가서 함께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합니다. 이상한 것은 그것이 어떤 혁명보다 더 큰 변화를 만들며, 사람들은 “그것이 행복한 것이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인간의 고통’에 대해 고민하며 누구는 ‘피’를, 누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선택하고 실천해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들을 때 ‘행복’하십니까? 혹시 ‘사랑’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셨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종교라는 아편’의 중독자입니다. 그리고 **故 이태석 신부**님의 노래나 삶에 대해서 들을 때 여전히 감격스럽고 행복하시다면, 여러분은 참된 ‘주의자(主의子)’입니다.

해외원조주일인 오늘 1독서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는 네 한가운데에 가난하고 가련한 백성을 남기리니, 그들은 주님의 이름에 피산하리라.”(스바 3,12) 그리고 **故 이태석 신부**님의 노래도 자꾸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생명의말씀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마태 5,3 참조
스바 2,3;3,12-13 1코린 1,26-31 마태 5,1-12ㄴ.

“하느님께서서는 인간에게 세상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창세2,15 참조)

- 기아와 재난의 핵심 원인, 기후변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

하느님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국 천주교회는 세계의 모든 가난한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1993년에 해외 원조 주일을 시행한 지 열아홉 번째 해를 맞이하며, 그동안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느라 수고하시고 도움을 주신 후원자들에게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인류발전은 인간과 자연환경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책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연환경은 하느님께서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며, 우리는 이 선물을 가난한 이들과 미래 세대와 인류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선용해야 합니다. 특히 신앙인들은 자연을 통해 하느님의 창조 활동의 놀라운 결과를 깨닫고 이용하면서 인간의 정당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진리안의 사랑」, 48항 참조). 하느님께서서는 인간에 앞서 자연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삶의 터전인 세상을 ‘일구고 돌보라’(창세 2,15)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외면한 인간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자연을 착취하고 수탈함으로써 자연은 그 본래의 균형을 상실하여 기후 변화와 빈번한 대형 재해를 일으켜 인간에게 죽음과 고통과 기아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의 자연재해는 규모도 커지고 그 빈도도 증가하고 있으며, 저개발국을 중심으로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UN의 새천년 첫 목표였던 “세계의 절대빈곤과 기아퇴치”를 위한

노력은 자연재해와 식량 위기, 경제위기 등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좌절되고 있으며, 이러한 좌절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지음 받은 존엄한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마저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빈곤은 자연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저개발과 환경 파괴는 서로 맞물려 있으며, 생태적인 위기를 해결하지 않고는 진정한 인간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국가가 환경 파괴를 줄이고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인류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과 우리의 생활양식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따라야 합니다(주교회의 지침서「창조 질서 회복을 위한 우리의 책임과 실천」, 36항 참조).

예수님은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가난한 이들에 대한 연대성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부단하게 나 이외에 이웃을 위해 살아가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리스도교의 정신은 사랑으로 요약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역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 동참해야 할 책임을 비켜갈 수는 없습니다. 세계의 가난한 이들의 삶을 개선하도록 돕는 것이 그들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길이며 결국에는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임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사랑이신 하느님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행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2011년 1월 30일 해외원조주일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안명옥 주교

아기할때 아기더라도

박성규 엘리시오





오늘의 미사

연중 제4주일
해외원조주일

입당성가

38 행복하여라

화답송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성가

216 십자가에 제헌되신

영성체송

주님, 당신 얼굴이 종에게 비추
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제가 당신을 불렀으니, 부끄
럽지 않게 하소서.

파견성가

37 행복한 사람들

영성의 향기

:: 기도의 생활화

꾸준한 기도생활은 그리스도 신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의 숨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막상 기도를 꾸준히, 또 규칙적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또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닌 셈입니다. 의지력이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의지력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관건은 습관을 들이는 데 있습니다. 생활 속에 아주 인이 박혀서,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에 이르면 자동으로 기도가 시작되는 그런 습관 말입니다. 피곤한 아침에 잠이 덜 깨어서도 면도를 하고 출근 준비를 하는 직장인처럼, 무수한 반복 훈련을 통해 기도하는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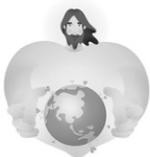


이렇게 말하면,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좋을 리 있나? 정신을 차리고 온 정성을 다 기울여서 바쳐야지.”하고 의문스럽게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몹시 바쁘거나 마음속에 짜증이 가득하거나 피곤해서 만사가 귀찮을 때에도 여전히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이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바치는 큰 정성입니다. 열심에 북받쳐서 불타오르는 기도보다 마음이 내키지 않고 하기 싫을 때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억지로라도 바치는 기도의 공로가 더 큼니다. 우리 마음속에 신심이 끊어오를 때는 순전히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만 기도를 잘 한다면 무슨 공로가 있겠습니까?

- 교구사목국 권가타라나 수녀 -

짧은 글 - 깊은 생각

일생일대의 대박



데이빗 던킨스가 막 뉴욕 시장이 되었을 때, 어떤 부동산 업자가 그에게 매우 입지가 좋은 땅이 마침 매물로 싸게 나왔는데 시에서 구입하여 개발하면 대박이 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사기 냄새를 맡은 던킨스 시장은 그 부동산 업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코끼리 두 마리를 단돈 만 원에 판다면 그건 싼 거지요. 하지만 그게 대박이 되려면 나한테 코끼리가 꼭 필요해야 하는 겁니다.” 새해 인사로 “올해 대박 나세요!” 하고 말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보통 재물, 승진, 취업과 같은 목표를 그렇게 표현하지만, 나에게 꼭 필요하고 온갖 것을 다 처분해서라도 지금 손에 넣어야 하는 진짜 대박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 율겨은 글입니다 -

- 행사 / 모임 -

제1회 대구대교구 병사들을 위한 봉사자의 날
일시: 2.11(금) 14:00, 교구청내 교육원 강당
미사집전: 조환길 태오 대주교
문의: 교구병원 사목담당, 250-3085

제98차 선택 주말

일시: 2.11(금)~13(일)
장소: 꾸르실료 교육관
신청접수: 박수진 모니카 (010)2566-0474
남유조 마리안나 (010)9352-3058
http://cafe.daum.net/daeguchoice

- 성소 / 피정 -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성소모임

일시: 2.5(토) 16:00~6(일) 14:00
장소: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대상: 고등학교이상-만32세이하 미혼남성
문의: (010)8353-2323

- 모집 / 교육 -

2011년도 보육교사자격증 취득

보육교사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문의: 850-3056 / 3366
대구가톨릭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 나는 성경공부'
구약편 봉사자 교육

일시: 2.9(수)~11(금) 13:00~18:00
장소: 삼덕성당 강당 101호
회비: 4만5천원 (교재, 간식제공)
문의: 425-5185 / (010)2990-5185

틴스타 성교육 지도자과정 워크숍

일시: 2.15(화)~18(금) 09:00~17:30
장소: 교구청내 별관 대회의실
대상: 청소년 성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
신청마감: 2.7(월)까지
문의: 250-3066 / (010)3823-9007

로고스 말씀가족 창세기(성인반) 겨울연수

일시: 2.18(금)~20(일) 2박3일
장소: 베네딕도 영성관(사수동)
회비: 10만원, 선착순: 55명
문의: 성서사도직담당, 250-3082

제17기 성요셉 아버지학교 개설

문의: 641-5678 (2.19일부터)

성체신심세미나 (010-5493-1819)

일시: 2.21(월)~23(수), 한티피정의집
내용: 성체현시, 조배, 참회예절, 성사, 안수
강사신부: 이홍근(바오로), 하성호(사도요한),
송재준(마르코), 서덕교(야고보), 정기모(요한보스코)
주관: 대구대교구 지속적인성체조배회

발마사지 봉사자 구함

발마사지로 주님사랑 표현할 봉사자
문의: 경북대학교병원 가톨릭 원목실,
(010)5524-5142

장례지도사 자격시험(7월) 취업교육생 모집

개강: 3.2(수), 매월 셋째주 토, 일
본당 선종봉사자 1박2일 교육
내용: 취업전문반, 자격취득반, 남녀궁중염,
연화염, 종교염, 고갈염, 장례도우미반
문의: 대가대평교원, 526-3413-5

부산 옹호동 묘지 연구자 파악

부산교구 옹호동묘지의 연구자님은
주소, 연락처를 부산교구 묘지관리사무실
(월~토, 051-628-4162)에 신고하세요. 친척과
상의하여 중복신고가 되지 않도록 바랍니다.

- 직원 채용 -

교구청 비서실 직원 모집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본당주임신부추천서, 최종학교 성적증명서각 1부
마감: 1.31(월) 17:00 교구청 본관 1층 관리과로 제출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일시 및 장소 개별통보
문의: 250-3016

선남성당 사무원 모집

자격: 18세 이상 컴퓨터 사용 가능한 자
문의: (054)933-3120

꽃동네사랑의연수원 직원모집

대상: 인성교육에 관심 있는 청소년지도교사
문의: (043)879-0406, www.kkotlove.or.kr

- 안 내 -

예비지원자를 위한

프란치스칸 영성강의, 미사

일시: 3.19(토) 14:00
장소: 월배수도원
대상: 53세 이하 가톨릭신자
문의: 632-9800 / (011)9594-9441

교구법원공시(253-9550)

아래 공시되는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박주현(베드로)

미 사	일 시	장 소	미 사	일 시	장 소
성모의 기사회 미사	2월 5일(토) 오전10시	월배성당 내 수도원	푸른군대 첫 토요일신심미사	2월 5일(토) 오후2시	남산성당

(주)매일종합가전

생활가전, 전자메트, 구울장, 난로,
냉방기, 선풍기, 냉방기,
소형가전, 전자사전, IT 제품
대구유동단지 전자관 1층 239호 (중앙을 옆)
대표: 김홍은(요셉) 평협 사무국장
TEL: 604-3300 (대)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등 관절통
골프, 테니스 등 스포츠 통증
통증의학 전문의, 원장: 정순우 (요셉)
범어네거리 그랜드호텔 건너편 범어롯데캐슬 상가 2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6번 출구)

사랑의 피부과

피부 질환, 레이저, 스킨케어, 보톡스
박의현 구심내과 심장전문의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초음파
위치: 지하철2호선 경대병원역 3번출구
☎ 256-6700 서정희(카타리나)
☎ 252-1785 박의현(안드레아)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플 때~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병원장 최은석
원장 송대흠(요한) 원 장 도홍직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

긍정에너지가 넘치는

상인행복을심는치과병원
상인 롯데백화점 주차장 입구
롯데리아 건물 5층
T. 633-7504 / 634-7504
원장 강원일(안드레아) · 구선주

장윤제

연합치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과 임상교수
원 장 장 윤 제 (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 편
T. 752-9797

KIM YOUNG JOO GOLF

만촌점
만촌네거리
아크르타워 상가 1층
◆ 지하철 2호선
만촌역 2번 출구
바로 앞
임혜경 (올리아) T. 744-9226

수성점

남부 정류장 방면 수성아크로 타워 상가 1층
◆ 지하철 2호선 만촌역 2번 출구 바로 앞
T. 744-9227
대표 이윤순 (수산나)